

바다는 일터이자 놀이터 ... 평생을 함께한 삶의 터전



"놀러간다"고 말했던 상정마을 어머니들이 마을 앞 갯벌 바위에서 자연산 굴을 채취하고 있다. 굴은 매생이·미역과 함께 상정마을의 주요 생산물 중 하나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40여가구 250여명 사는 고금면서 가장 큰 마을 ... 송림 울창 천혜의 경관 자랑

굴·매생이·미역 해산물 풍성
충무공 유적·결궁농약 등
역사·문화유산 볼거리도 많아

조선시대 진주강씨와 이천서씨가 이주해 살며 마을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은 고금면에서도 가장 큰 마을로, 대촌을 이루게 됐다.

상정마을은 지형이 아홉구미로 나뉘어 불린다고 해서 상구미라 했으나 아홉구미의 송림(松林)이 울창하고 마을 앞 높은 곳에 정자나무가 있어 상정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마을을 둘러싼 오래된 소나무가 제법 운치가 있다. 송림이 우거진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갈매기의 형태를 닮고 있다. 고금도가 그렇듯 상정마을 역시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로 둘러싸인 내해적 특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마을 앞 너른 바다는 외파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양식여장을 개발하기 적합한 입지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생업 또한 양식이다.

마을을 둘러싼 3면이 바다로, 주민들도 주로 굴과 매생이, 미역을 양식하고 있다. 상정마을에서 키워낸 굴은 타 지역 굴과 다르다.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다. 그러면 서도 속 알맹이는 씨알이 굵어 식감이 뛰어나고 굴의 향도 진하다. 청정해역에서 키워낸 매생이와 미역 등 해조류도 역시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마을 규모가 큰 데다, 마을을 둘러싼 바다도 넓은 탓인지 주민들의 품도 넓다. 다른 어촌마을과 달리 낚선 이방인을 대할 때도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마을의 특성 덕분에 귀어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까지 10여 가구가 귀어해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중이다. 귀어를 하려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고령화되고 있는 마을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젊은 청년 어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마을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고금도에서도 가장 큰 마을로 역사와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상정마을은 뛰어난 문화유산도 품고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고금도는 조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을 준비한 곳이다. 상정마을에는 임진왜란 때 군비를 모금하기 위해 창단됐다고 알려진 농약단이 있다. 상정마을에서 전해져오는 농약은 일명 '결궁농약'이라고도 불린다. 당시 이순신 장군이 고금면 덕동리에 전라우수영을



하늘에서 내려다 본 상정마을의 모습. 고금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촌이다. 울창하게 뻗은 소나무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 바다는 양식장을 개발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상정마을 앞바다에서 자라고 있는 매생이가 가득이나 푸른 바다를 더 푸르게 물들이고 있다. 배를 타고 나가 양식장을 손보는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분주해보인다.

설치했을 때 군비를 모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약대가 멋드러진 가락으로 곳을 치면서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현금으로 군대와 의병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유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후 이 농약은 매년 음력 정월 초 3일이면 동네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인 현식제를 모시면서 펼치는 곳으로 이어져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눴고, 웃고 즐기고 춤추는 등 온 동네가 하나 되는 전통문화로 자리 잡았다. 한때는 주민들이 이 결궁농약으로 완도군 대표 선수로 출전해 전라남도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다만, 아쉽게도 마을 전통 농약을 계승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젊은 청년들이 적고 생업이 바빠지면서 결궁농약을 계승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상정마을과 결궁농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을 인근의 '묘당도 이충무공유적'을 한층 더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게 된다. 사적 제114호인 묘당도는 고금도에 딸린 섬으로 정유재란의 마지막 해인 1598년(선조 31) 2월 18일 이순신이 수군 8000여명을 이끌고 고하도(高下島)로부터 옮겨 진을 친 곳이다. 그 해 7월 16일 명나라의 원병으로 수군도독 진린(陳璘)이 병선 500여척으로 고금도에 도착, 묘당도에 진을 치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전선을 이뤄 왜적의 침범을 막아냈던 유적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갯벌 활용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 관광객 유치"

김광희 어촌계장

"생동감이 넘치는 어촌마을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상정마을 김광희 어촌계장은 마을의 변화와 발전에 그 누구보다 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시골에 있는 어촌마을이지만 마을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우선 마을의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을 앞 너른 바다와 갯벌을 활용한 개매기 체험이나 바지락 채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마을을 둘러싼 뒷산 소나무 숲도 공원이나 산책로 등으로 개발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에도 관심이 크다.

김계장은 "고금도에서 가장 크고 넓은 바다를 가진 마을이지만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며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상정마을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굴과 매생이 등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산물에 고유 브랜드를 입혀 전국으로 유통시켜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청정해역에서 키워낸 굴과 매생이, 미역 등 상정마을에서 생산한 것은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언제든 시도할 수 있도록 주민들 모두 양식부터 수확, 유통



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을 해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의 변화를 꾀할 수 있었던 것은 어촌계원들을 비롯해 마을전체 구성원들의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을에 변화를 가져오고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데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귀어인 출신이라고 밝힌 김광희 계장은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적극 수용해 고령화로 노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고 싶다"며 "젊은 사람들이 모여 결궁농약의 맥을 잇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마을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서천공주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TG → 강진무위사IC → 강진군 → 고금면 → 상정마을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강진버스터미널(4시간30분) → 강진버스여객터미널정류장 도보 이동(2분) →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승차 강진-당목-고금-강진 행(48분) → 고금여객

터미널정류장 하차 → 고금여객터미널 정류장 고금-상정행 승차(6분) → 상정리정류장 하차 → 상정마을

▶ 열차

용산역KTX → 광주송정역(1시간32분) → 송정역 정류장 좌석 02번 탑승 → 광천터미널 정류장(40분) →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 고금시외버스터미널(2시간) → 고금시외버스터미널 → 상정리 정류장 하차 → 상정마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